

# 대학가 대면 수업 검토에 “이르다” vs “고려할 때” 팽팽

서울대, 2학기 대면 수업방안 확정 연세대 등 수강인원 제한 대면수업 교육부, 2학기 대면 개강 지원 논의

서울 주요 대학들이 대면 수업 확대를 검토하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사회적으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대면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20대는 백신 접종에서 가장 뒷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에 벌써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건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서울대·연세대·한양대 등 대면 수업 확대 방안 마련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일부 서울 주요 대학들은 오는 2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학들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실험·실습 여부 등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대학가에서 가장 먼저 2학기 대면 수업을 확정 한 곳은 서울대다. 서울대는 지난달 31일 총장 주재 수업 환경 개선 회의 끝에 2학기 대면 수업 방안을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각 대학들이 1학기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신촌의 대학가 모습. /강준혁 수습기자

하고 발표했다. 서울대는 2학기 대면 수업을 위해 한 강의당 수강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초과하면 인원을 분산할 계획이다. 학생 분산을 위해 기존에 강의가 없던 점심시간, 오전 9시 이전, 오후 5시30분 이후, 주말에도 수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와 서강대, 성신여대는 수강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대면 강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도 거리두기 단계별 대면 수업 진행을 확정

했다. 중앙대 등 다른 주요 대학들도 대면 강의 확대를 적극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 활동을 원천적으로 중단했던 대학의 정상화가 멀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은 2학기 대면 수업을 확대해 지난해 불거졌던 수업 질 하락 문제 등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우선 교육부가 마련 중인 지원 체계나 타 대학 상황을 보고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백신 접종 못 하는 20대…“대면 강의 이르다”

그러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대면 수업 확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대로 수업을 듣고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겠다며 환영하는 반응도 적지 않지만, 아직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어서 감염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많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이모 씨는 “대면 수업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의 경우 대학생들도 백신을 다 접종한 뒤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국처럼 20대에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강하면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위해 사용하는 약품은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와 안센이다. 이 백신들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때문에 20대에게는 접종을 금지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도 20대는 접종이 후순위로 밀려 있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여름방학인 7~8월 중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과 재수생에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비대면 수업 취약점 많다”…대면 수업 찬성 의견도

비대면 수업의 취약점 때문에 대면 수업을 바란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서강대에 입학한 대학생 한지연(20·가명) 씨는 “이번 주에 시험을 보고 방학을 하는데 아직 대학 캠퍼스 안에서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고 친구들과도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대화하고 있다”며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받는 수업은 집중이 잘 안 되는 등 부작용이 커 2학기에는 개강을 해서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학기 대면 개강을 위한 지원 논의를 시작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2학기 대학 대면 수업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교육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의 2학기 대면 강의 확대를 위해 교직원들이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이현진 기자·강준혁 수습기자

lhj@metroseoul.co.kr

## ‘고려대 기사회생’… 75개 대학에 559억 지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지난 5월 중간평가, 73개교 지원 지속 연세대 중도 탈락, 성신여대 재진입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75개 대학이 최종 선정돼 총 559억원의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다. 지난달 이 사업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고려대가 기사회생했고, 중도 탈락한 연세대 대신 성신여대가 재진입에 성공했다.

교육부는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수행할 75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2021년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작년 선정된 75개 대학의 계속 지원 여부를 정하기 위해 지난 5월 중간평가를 실시해 73개교의 계속 지원을 확정하면서 고려대와 연세대를 탈락시켰다. 두 대학은 전년도에 각각 사립대종합감사 등에서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허위실적 기재가

적발돼 감점을 받아 절대평가 80점을 넘지 못했다.

중간평가에선 두 대학 이외에 수도권 5개 대학이 사업비 감액 제재를 받았다. 사업 탈락이 확정된 연세대는 지난해 이 사업 예산으로 11억원을 받았다.

중도 탈락대학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탈락한 두 대학과 올해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4개교를 대상으로 추가선정평가를 실시했고, 평가점수 상위인 고려대와 성신여대 2개교를 추가 선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추가선정평가에서는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학, 고교·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실시했으며 신청대학의 2021년 사업 운영계획, 2022~2023학년도 대입 전형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간평가와 동일하게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전형구조 단순화

등을 통한 수험생 부담 감소 노력, 사회통합전형 운영 등 사회적 책무성 준수 여부 등도 평가했다.

대학별 올해 사업 지원금은 채용사정관 수,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교육부는 7월 첫째 주 전후로 총 지원금의 70% 내외를 1차 지원금으로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 신청요건 중 정시선발 비율 확대 조건에 따라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송실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수도권 선발 대학 중 15개교는 2023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선발하게 된다. 나머지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30% 이상 선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동국대 경영학과가 16일 오후 2시 경영관 L501에서 ‘DBA 장학증서수여식’을 개최했다. /동국대

## 동국대 경영학과, DBA 장학증서수여식

22명 학생에게 총 2200만원 지급

동국대학교 경영학과가 16일 오후 2시 경영관 L501에서 ‘DBA 장학증서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22명의 학생에게 총 2200만원이 지급됐다.

경영학과는 동문회의 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DBA 스칼라십과 해외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 해외 탐방을 지원하는 ‘DBA 익스플로러 장학금’, 해외 유학지원금 및 본교 대학원 진학지원금 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동국대 경영학과는 1956년 전국에서 4번째로 설립된 경영학과로 지금까지 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현진 기자

## 삼육대 도르가회, 장학기금 3000만원 기탁

누적 6억200만원 기부 매주 수요일 바자회 개최

삼육대학교교회 도르가회가 장학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그간 도르가회가 대학에 기부한 누적 장학금은 6억200만원에 이른다.

17일 삼육대에 따르면 1960년대 조직된 도르가회는 삼육대학교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지역사회 봉사 단체다. 일평생 이웃을 위해 구제와 선행으로 헌신한 성경 속 인물 ‘도르가’에서 이름을 따왔다.

도르가회는 매주 수요일 교내 체육관 앞에서 ‘장학기금 마련 수요바자회’를 열고 있다. 봉사자들은 직접 농수산물

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 오거나, 손수 발품을 팔아 지방 농가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농작물을 가져오기도 한다.

믿을만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무엇보다 수익금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바자회는 ‘도르가 장터’로 불리며 지역사회 명물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모아 학교에 기탁된 장학금이 6억2000만원에 이른다. 장학금 집계를 시작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889명의 학생이 수혜를 입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학과 추천으로 선발해 매년 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 고려대, 서울식물원 체험 VR콘텐츠 선봬

XR루다가팀, 서울 VR·AR 엑스포 참가

고려대학교가 서울 식물원을 바탕으로 체험자가 가상현실에서 건축물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VR 체험을 코엑스에서 선보인다.

고려대는 건축학과 내 TF(태스크포스) ‘XR LUDAGA(루다가)’팀이 서울 코엑스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서울 VR·AR 엑스포’에 참가해 국내 최초로 건축 에듀테크 콘텐츠를 출품, 전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VR·AR 엑스포’는 메타버스의 주축을 이루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복합현실(XR) 핵심기술과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 참가해 국내외 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박람회다.

XR 루다가가 출품한 ‘건축 에듀테크 콘텐츠’는 서울 식물원을 바탕으로 한 VR 체험으로, 체험자가 가상현실에서 건축물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콘텐츠 체험자는 3D 모델링 VR 채



서울 식물원을 바탕으로 체험자가 가상현실에서 건축물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VR 체험을 고려대 건축학과가 개발해 18일까지 코엑스에서 선보인다. /고려대

험을 통해 기존 2D 방식의 일방향성 건축 체험 방식을 뛰어넘어 3D와 동선 직접 선택의 방식으로 VR 상에서 건축물을 체험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